# “소라·전복 대신 성게·보말 잡으며 겨우 버텨”

## [제주잠녀] 107.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78)제주시화북어촌계

등록 : 2008년 02월 25일 (월) 17:47:16
최종수정 : 2008년 02월 25일 (월) 17:47:16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화북포구에서 물질하는 잠녀들

휘호이…, 휘호의…, 효후우…, 효후우….
모처럼 햇살이 쏟아진 바다 위로 휘파람 소리 같은 숨비소리가 겹쳐진다.
둥둥 떠있는 테왁을 따라 발을 서두르다 보니 여기 저기 불쑥하고 '검은 머리'가 올라온다. 그것도 잠시. 이내 까만 오리발이 하늘을 향한다. 여기저기서 다시 억척스런 삶의 소리가 따라온다. 잠녀들이 부산을 떠는 바다에는 어느새 봄이 찾아온 것 같다.

**#갈수록 좁아지는 바다, 그보다 더 줄어든 잠녀**

"최근 84살이 넘은 삼촌이 돌아가셨으니…" 헛물질을 하는 잠녀 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홍표민 어촌계장(54)은 잠시 머뭇거렸다.

어촌계는 하나지만 잠녀회는 동·서 마을로 나뉘어 탈의장도 두 곳이다. 두 곳 모두해서 25명의 잠녀 중 50대 1명·60대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70대다.

어촌계원도 잠녀가 전부,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촌계사무실은 아예 없다.

"공동양식장 작업이나 하면 몰라도 상시로 물에 드는 잠녀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홍 어촌계장이 처음 이 일을 맡을 때만 해도 소라 수확량만 수백㎏가 넘었다. 천초며, 톳으로 제법 벌이가 됐었다.

지금은 사정이 한참 다르다. 한번 작업에 소라 2~3㎏가 고작이다. 물건으로 인정을 받을만한 크기의 것만 그렇지 '대부분 알이 작아 작업을 못한다'는 푸념이 뒤따른다.

수협을 통해 판매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보관을 해야하지만 걷어들인 물량이 적다보니 오히려 시간·비용 부담이 커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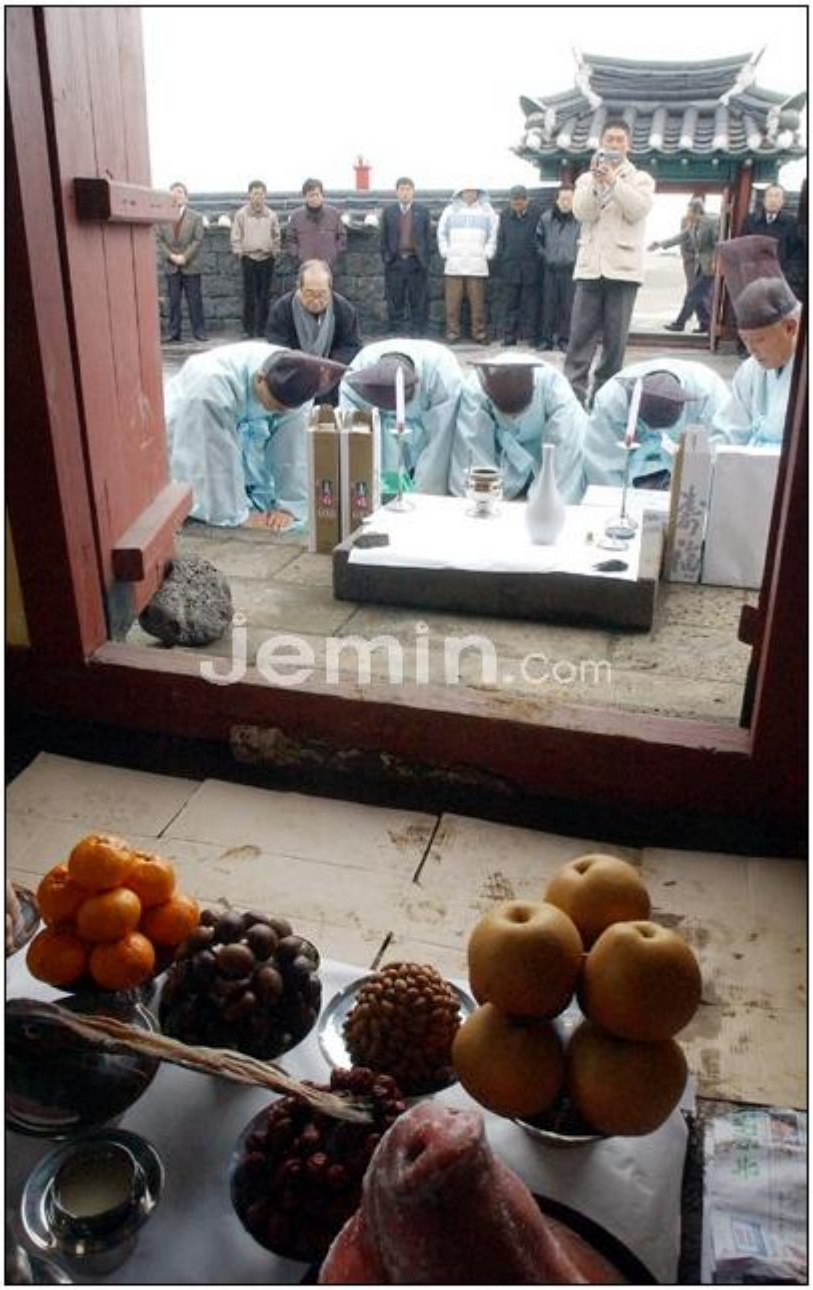
소라·전복과는 천적관계인 성게가 오히려 돈벌이가 되고 있고 여름에는 보말을 잡는 것으로 물질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곳 잠녀들은 등대를 기준으로 동·서 바다를 나눠 작업을 한다. 종패도 한 어촌계 사업으로 받아다 두 곳이 나눠 뿌린다.

서쪽으로 동부두 외항 건설을 하면서 자취를 감춘 건 톳만이 아니다. 이종항 방파제 등 계속된 화북포구 정비 사업 등으로 바다는 점점 좁아졌고 그만큼 물건도 줄었다.

홍 어촌계장은 "외항 건설 등으로 바다 조류가 바뀐 것 같다"며 "잠녀들이 물에 들면서도 예전과 작업하는 것도 달라지고 물건이 나는 장소도 바뀌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 화북포구




▲ 화북해신제

**# '제주의 관문' 명성은 뒤로 하고**

"화북포를 살펴보면 이섬의 목구멍과 같아 배를 대는 중요한 포구…" TV드라마로 한창 입에 오르내리던 조선 영조 11년(1735년) 김 정 목사가 화북포구 선착장을 축조하며 신에게 올렸던 축문만 봐도 화북포구는 당시까지만 해도 타 지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와 인재가 드나들었던 제주의 관문이었다. 그래서일까. 이곳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환해장성이 일부 남아있다. 제주도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된 화북 환해장성은 연대 동쪽에서 삼양 경계인 벌렁까지 '별도 환해장성'과 '곤을동 환해장성'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다.

바다의 신 선왕신을 모시는 사당인 '해신사'는 마을의 해신당인 동시에 정월에는 해상 교통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드리는 곳이다.

어촌계에서 해신제를 주관하다 마을 단위로 확대한 것이 얼마 안 된다. 해신사 앞 용천수 등 '물이 좋은'용천수 3곳까지 화북은 빼어난 자원을 갖춘 곳이다.
하지만 바다만큼은 그렇지 않은 듯 했다.
봄을 시샘하듯 햇살 좋은 2월 방파제 안쪽 바다를 뒤지고 있는 잠녀들에게 바다는 너무 좁아 보인다.
"외항 건설 등으로 보상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일부는 마을과 나눴고, 이곳 잠녀들에게 바다 말고는 삶을 의지할 곳이 없다"며 "특별자치도 이후 어촌계 등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고 잠녀들이 설 자리도 없어지는 것 같다"는 홍 어촌계장의 하소연의 남 얘기 같지 않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삼양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